

[기획 논문]

전라남도 장성·담양 문학공간 연구

A Study on the literary space of Jangseong & Damyang, Jeollanam-do

최수웅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차 례

- | | |
|---------------------------------|-----------------------------|
| 1. 서론 | 3. 역사적 상흔의 회복을 갈망하는 공간 |
| 2. 민중적 연대의식의 근원지가 되는 고향 | 1) 방울재·장성댐 |
| 1) 담양 수북면 공산리 | 4. 문화적 전통을 전승하려는 노력이 표현된 공간 |
| 2) 주평대교와 공산리대교, 그리고 메타세
쿼이아길 | 1) 월산면 도개리·소쇄원 |
| 3) 대전면 행정부락 | 2) 강정리 |
| 4) 죽물시장·읍내리 오층석탑 | 5. 결론 |

1. 서론

장성(長城)과 담양(潭陽)은 전라남도의 북쪽 경계이자, 호남 사림(士林)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화권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로부터 호남평야와 전남평야를 연결하는 교통로 역할을 담당했던 갈재(蘆嶺)에서 남쪽의 무등산에 이르는 산악지형이 경계의 의미에 해당하는 공간이라면, 필암서원(筆巖書院)을 필두로 하는 여러 서원과 면앙정(晩仰亭)·송강정(松江亭) 등을 비롯한 다수의 정자들은 사대부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홍선대원군이 조선 팔도에 관해 평하면서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 즉 “학문으로서는 장성만한 곳이 없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장성은 전통적인 선비의 고장이며, 담양 역시 사대부들의 한거(閑居)와 수양과 은둔의 공간이 되었던 곳이다.¹⁾ 이러한 문화적 전통

1) 한국문화유산답사회 편, 『답사여행의 길잡이 5·전남』, 돌베개, 1995, pp.18~21.; pp.38~40.



▲ 〈한국가사문학관〉 표지석과 전경. 장성 및 담양 지역에 전승하는 호남 사가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다.

은 문학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양반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인 '가사(歌辭)'가 발달했다. 2000년 10월 “가사문학 관련 문화유산의 전승·보존과 현대적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건립된 〈한국가사문학관(韓國歌辭文學館)〉이 이와 관련된 문화 시설이다.²⁾

그렇지만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이 현대문학에 끼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사대부보다는 민중의 관점, 즉 경계와 고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배계층의 자기수양보다는 피지배계층 간의 연대와 이를 통한 현실 문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장성과 담양의 문학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민중적 연대의식의 근원지가 되는 고향

1) 담양 수북면 궁산리

고재종의 시는 작가의 생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는 담양 수북면 궁산리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꾸렸으며, 마을 이장을 맡아 농민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농촌은 막연한 동경이나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질박한 삶이 전개되는 치열한 생활 공간으로 제시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곧 고재종의 고향인 궁산리의 모습이 형상화된 것이며, 시인의 체험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의 초기 대표작인 「농사일지」 연작을 통해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연작의 첫 번째 작품인 「농구를 닦는 날」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2) 『전국 문학관 찾아가기』, 한국문학관협회, 2004, pp.40~41.

일년농사에의 그리움 또한 문적맥답으로 푸르다.
그까짓 지어봐야 피눈물뿐인 요즘의 농사
허나 우리의 참일 농사일 아니고 무슨 일 있나,
어두운 마음 구석도 닦아내며
내일은 땃들 보릿논에 북부터 주어야지³⁾

인용된 시의 화자는 “지어봐야 피눈물뿐인 요즘의 농사”라는 서술을 통해 산업화가 가속화될수록 황폐해지기만 하는 농촌의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허나 우리의 참일 농사일 아니고 무슨 일 있나”라는 서술을 통해서 농사일과 농민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현했다.



▲ 담양 공산리에 있는 시인 고재종의 생가. 그의 시세계는 고향과 그 인근 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다.

시인의 인식체계에 의하자면, 농촌이 황폐해진 원인은 내부에 있지 않다. 문제는 항상 외부에서부터 찾아와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을 괴롭힌다. 「농사일지」 연작의 또 다른 작품인 「하남실들」에서 시인은 농촌을 피폐하게 만든 원인으로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농촌정책을 들었다.

말만 좋은 선진조국
북도 그친 복지농촌
설움 많은 우리 농부
근심 걱정 모를 심네

이 골 저 골 소쩍새는
암수 찾아 물어예고

3) 고재종, 「농구를 담는 날 - 농사일지 · 1」, 『새벽 들』, 창작과비평사, 1989, p.8.

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5호

절레꽃 절레 향기는
제 철 만나 풍기지만
봄이 와도 이 들판엔
아낙네와 늙은이뿐
태산 같은 빗걱정에
애만 타는 우리 농부
어헤어헤 탄식하며
하릴없는 모를 심네⁴⁾

또한 다른 시집에 포함되어 있는 「풍경에 대하여」에서는 자본주의의 천박한 풍습이 파고드는 세태를 고향의 정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작품 경향은 그의 이후 시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제목에서부터 작품의 지향이 분명하게 표현된 「골프군 러브호텔면 가든리의 화훼농 김씨의 꿈」 등이 대표적이다.



▲ 고재중 시의 주요 무대가 되는 공산리 마을 입구.

논두렁 풀 베다 고개 들면
저 산영 잠기던 저수지 언덕에
오색 칠색 만국기 펄럭여대는
러브호텔이 우뚝하니
밤이면 그 질탕치는 불빛 속에
하늘의 별들도 눈을 감고
노인들은 일찌감치
삼십축 호린 등불을 꺼버린다
남은 것은 우리에게 쓸쓸함뿐
차마 막막한 마음
저기 신작로 쪽에나 눈을 주면
거기엔 또 주유소며 가든음식점

4) 고재중, 「하남실들 - 농사일지 · 10」, 위의 책, p.26.

검은 세단들로 준비하여
산천초목 그 정결함에 길들여진
우리의 눈 둘 곳은 어디인가⁵⁾

이상과 같은 원인 분석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조망하였다. “국가의 경영이 우리의 삶과 정서의 근원인 농촌을 깎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돈을 버는 데 급급했던 20세기 최후반의 한국 농촌의 자화상”⁶⁾을 표현했다는 평가는 그의 사회 인식에 근거를 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작품세계는 문제에 대한 인식에 그치지 않는다. 고재중은 초기 작품에서부터 꾸준히 농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그는 문제에 굴복하기 보다는 맞서 싸울 것을 중용하였으며, 혼자 싸우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에 인용된 「겨울보리」와 「대동」 등은 그러한 시인의 의식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예이다.

멀리 삭풍 울음 스산한 들에 보리싹 청청히 일어서고 보리싹 함성 치는 소리를 듣는다.

찬란한 승리의 그날을 위해

때론 우리 성난 황소떼의 울부짖음으로 후다닥 달리는 우리 미친 순결함으로 보리싹 의연한 들판 거꾸로 피흘려 달리며 노래하며 그날로 가는 희망을 나부끼며 처처에 아우러지는 푸른 역사에의 함성을 듣는다.⁷⁾

모였네

우리 오늘 모였네

저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서럽도록 맑은 가을별 아래

(……)

5) 고재중, 「풍경에 대하여」, 『날랜 사랑』, 창작파비평사, 1995, pp.82~83.

6) 박재구, 「결코 쓰러지지 않을 궁산리의 이야기」, 위의 책, p.144.

7) 고재중, 「겨울보리」, 『새벽 들』, 앞의 책, p.74.

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5호

산밑의 순한 궁산리 사람들
깡 세기로 이름난 대방리 사람들
정산 말월 용정의 두정리
머구쟁이 강골 삼인동의 두정리
축구대회에서 해마다 우승을 겨루는
개동리와 나산리 사람들
전우치가 황금대들보 숨겨놓은
물 아래 황금리 사람들
그리고 농민회장 사는 풍수리
수세 대책위원장 사는 고성리까지
사방 동네가 모였네
사천여 얼굴이 모였네
(……)
애초에 우리네 삶
일하고 노니는 우리네 삶
그까짓 농사도 직업이냐는
시대의 멸시에 눌러
너나없이 떠나가고 못한
우리만 남아 허우적대지만
아직도 우리는 농사꾼
농자는 천하지대본⁸⁾

2) 주평대교와 궁산리대교, 그리고 메타세쿼이아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재중은 고향인 궁산리를 중심으로 농촌의 현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왔다. 그러나 그의 작품세계가 그곳에 한정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전면적인 변환이나 변모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지

8) 고재중, 「대동」, 위의 책, pp.114~120.

만, 그는 “황망하고 거친 현실을 환한 생명의 맥박으로 바꾸”⁹⁾는 작업에 몰두하였으며, 그러한 탐색의 결과는 「앞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을 통해 표현되었다.



▲ 고재중의 시 「앞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의 배경이 되는 주평대교에서 공산리대교 사이를 흐르는 강.

그토록 흐르고도 흐를 것이 있어서 강은
우리에게 늘 먼먼한 희망으로 흐르던가.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듯
굽이굽이 굽이치다 끊기다
다시 온몸을 세차게 뒤틀던 강은 거기
아침 햇살에 샛노란 승어가 튀어오르게도
했었지. 무언가 다 놓쳐버리고
문득 황황해하듯 홀로 강둑에 선 오늘,
꼭 가뭄 때문만도 아니게 강의 자꾸 야위고
(……)
우리가 강으로 흐르고
강이 우리에게로 흐르던 그 비밀한 자리에
반짝반짝 부서지던 햇살의 조각들이여,¹⁰⁾

이 작품은 그의 고향 인근에 있는 주평대교에서 공산리대교 사이를 흐르는 조그만 강이 배경이 되었다. 위에 인용된 구절에서 화자는 가뭄이 아닌데도 자꾸 야위어 가는 강을 대신하여 ‘우리’가 흐른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제는 흔적으로 남은 강의 자리에 “반짝반짝 부서지던 햇살의 조각들”을 기억한다고 표현했다. 이는 문제로 가득 차있는 궁핍한 생존의 현장을 지키면서도, 민중의 연대를 통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인의 세계관이 또 다른 형식으로 제시된 것이다.

9) 이지엽 외, 『광주·전남 현대시문학 지도』 1권, 시와사람, 2001, p.128.

10) 고재중, 「앞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 『앞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 문학동네, 1997, p.12.

해거름, 들길에 선다. 기엄기엄 산그림자 내려오고 길옆의 망초꽃들 물래 흔들린
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제는 벼 끝으로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 세상에 허
투른 것은 하나 없다.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쪽독새는 저녁 들을 흔들고
그 울음으로 벼들은 쪽쪽쪽쪽 자란다.

(……)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서늘하고 뜨겁고 교묘하다. 난 아
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 그 노래가 세
상을 푸르게 밝히리.¹¹⁾

위에 인용된 「들길에서 마을로」에서는 '길'과 '마을'이라는 두 가지 공간을
통해서 시인의 사유가 표현되었다. 작품에서 '길'은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확
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화자는 이곳에서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는 자연을
발견한다. '망초꽃'에서 비롯된 그것은 '벼'로, '또랑물'로 '대숲 둘러친 마을'



▲ 담양에서 순천으로 가는 메타
세쿼이아길 전경.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
선>에 뽑힐 정도로 빼어난 경치
로 유명한데, 이는 고재종의 시
「들길에서 마을로」에 등장하는
마을로 연결되는 들길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마을'은 그의 앞선 작품들이
그려했던 것처럼, 생활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던 화자의 시각은 다시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
기'를 타고서 '밤꽃 향기'로, '들'로, '지평선'으로,
'쭉국새 울음'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개밥바라기
별'로까지 확장된다.

이처럼 이 작품은 '길'로 표현되는 자연이 '마을'
로 표현되는 인간의 삶을 감싸고, 이것이 다시 여타
의 자연 사물로 확산되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재종의 시가 "생명 환경 문제의 얽힌 실마리를 푸
는 귀중한 단서를 담고"¹²⁾있다고 한다면, 그 문학적
발현은 「들길에서 마을로」에서 확인되는 자연의 생
명력과 인간의 생활이 순환을 이루는 구조에서부터

11) 고재종, 「들길에서 마을로」, 위의 책, pp.44~45.

12) 이승원, 「면면하고 환한 생명의 자리」, 고재종, 위의 책, p.128.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3) 대전면 행정부락

최두석 역시 민중적 연대를 지향하는 작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는 고재종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지만, 그 표현방법이나 문학공간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는 사



▲ 최두석이 다녔던 한계초등학교 전경. 그에게 있어 본격적인 고향 체험은 초등학교까지였다. 중학교에 입학했던 무렵부터 타향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못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작가의 생애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담양 대전면 행성리 행정부락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다른 고장에서 생활하게 된다.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하여 상경했으며, 이후로는 서울 인근 지역을 근거지 삼아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 체험은 그의 작품들이 보다 폭넓은 문학공간을 형성하는 근거가 된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던 무렵에 작품의 원체험적 공간으로 제시했던 ‘광주’나, 서사시집 『임진강』에 표현된 ‘임진강’, 그리고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동두천 민들레」 등에 제시된 ‘동두천’ 등을 살펴보더라도, 최두석은 상당히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작품을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재종의 문학공간이 주로 고향 마을과 그 인근으로 한정되었던 것도 대비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두석 역시 고향과 그곳의 정서를 시세계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그의 시집에는 빠짐없이 고향과 그곳 사람들을 다룬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집에 수록된 「대바구니」는 그러한 작품 경향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인용된 부분에 제시된 대바구니를 짜는 사내와 아내는 시인의 부모로 파악할 수도 있고, 담양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 고향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기도 한다.

마당에 가마니를 깔고 앉은 사내가 대를 쪼개며 집 안에 흩어 놓은 땀내를 아내는

방안에서 바구니를 짜며 모은다. 자신의 작은 바램도 곁들여 담아 놓는다. 그리고 그 바구니는 담양장에서 장사 떠나는 다른 아낙에게 넘어가 기차를 타고, 여인숙에서 며칠 합숙하는 사이 그 아낙의 아들 공납금 걱정까지 담겨 지금 서울을 고층 아파트 입구에서 팔려 가길 기다린다.¹³⁾

이처럼 최두석의 시는 인물과 인물의 만남을 통해 생성되는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창작 경향은 일반적으로 ‘이야기시’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데, 시인 자신은 이를 “서사지향성이 강하게 발현된 시, 즉 처음과 끝을 갖는 어떤 변화 발전하는 사건이 한 편의 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¹⁴⁾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시’의 면모는 우선 고향에 전래하는 설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된다. 아래에 인용된 「전우치의 황금대들보」와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옛날 어느 극심한 보리 흉년 쌀 흉년에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세상 임금들의 처소에 야간 돌입해 옥황상제의 궁궐을 짓는다고 속여서 금대들보 금서까래를 거두어갔다. 그래 백석들을 구휼하는 데 서까래를 쓰고 대들보는 남아 내 고향 들판에 묻어 두었다고 전하는데 가을 벌판이 온통 황금빛으로 출렁일 때면 정말 믿고 싶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개울이나 두엄자리에 던져두고 동무들 모두 들을 떠났다. 이발사 운전수 자개공 먼서기 외판원이 되어.¹⁵⁾

설화에 대한 관심은 그의 다른 작품인 「두꺼비」, 「놀부전」, 「장화홍련」 등에서도 확인된다. 이런 작품들에서 설화는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즉 알레고리(allegory)의 기법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옛 이야기가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인물들에게로 향하는 경우가 바로 ‘이야기시’에 해당한다.

13) 최두석, 「대바구니」, 『대꽃』, 문학과지성사, 1984, p.32.

14) 최두석, 『리얼리즘의 시 정신』, 실천문학사, 1992, p.23.

15) 최두석, 「전우치의 황금대들보」, 위의 책, p.33.

최두석의 '이야기시'는 한 인물의 생애를 전면에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지만, 특히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소외당했던 계층에 집중되었다.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과 소련군의 틈바구니에 끼어 고난을 당했던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한성대」나, “가난한 농사꾼의 팔남매에서 일곱째”로 태어나 “라디오로 고등학교 마치고 야간 대학에 다니던” 여공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이야기를 다룬 「박정길 양」 등의 작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개인적인 체험에서부터 민족적인 체험까지 다방면의 각도에서 시를 쓴 작가”¹⁶⁾라는 평가는, 그가 다루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우리 민족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두석은 '이야기시'를 통해서 현실 문제를 제시하였고, 그러한 문제적 현실을 살아갔던 민중들을 부각시켰다. 이는 시인 자신이 밝힌 “서사지향성의 문제는 시의 현실 대응력의 문제이고 시에서의 리얼리즘 실현문제에 연결된다”¹⁷⁾는 주장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작방법은 최근의 작품들 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존 작품들이 시인의 서술을 통해서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데 비해, 아래에 인용된 「강도근」부터는 등장인물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변했을 뿐이다.

나는 내 손으로 농사지은 곡식으로 먹고 살아. 그것이 마음 편하고 좋아. 촌놈 유세현다고 비웃어도 나는 오히려 그이들을 비웃네. 사람 많고 차도 많고 시끄럽고 숨막히고 어디 서울이 사람 살 곳인가. 그리고 아무리 돈이 있어야 말을 허는 세상이지만 돈, 돈에 눈이 벌개져서 돈밖에 몰라. 모다들 문화제 현다고 쫓아댕기고 야단이 났넌디, 나는 그런 부지런 어찌케 떠는 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관두라 그 맘이여.¹⁸⁾

16) 박은미, 「장르 혼합현상으로 본 이야기시 연구」, 『겨레어문학』 제32권, 겨레어문학회, 2004, p.223.

17) 최두석, 앞의 책, p.20.

18) 최두석, 「강도근」,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문학과지성사, 1997, p.85.

4) 죽물시장·읍내리 오층석탑

그러나 최두석의 모든 시가 현실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적지 않은 수는 고향에 내포된 모성(母性)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작가들이 그러하듯이 최두석에게 있어 고향은 ‘어머니의 품’으로 인식된다. 고향을 다룬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어머니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아래에 인용된 「담양장」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새벽 서리 밝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 이고 장에 가시고 고구마로 점심 때운 뒤
기다리는 오후, 너무 심심해 아홉 살 내가 두 살 터울 동생 손 잡고 신작로를 따라 마
중 갔었다. 이십 리가 짹짹한 길, 버스는 하루에 두어 번 다녔지만 꼬박꼬박 걸어오
셨으므로 가다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생각하며 낮선 아줌마에게 길도 물어가면서 하
염없이……

(……)

아, 요즘도 장날이면

허리 굽은 어머니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옆에 쭈그려앉아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¹⁹⁾



▲ 행정부락의 버스 정류장. 시 「담양장」의 화자는 장에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신작로를 따라 마중을 간다.

시인이 제시한 ‘담양장’은 담양읍 만성리 관방재 아래에 있는 죽물시장을 뜻한다.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죽물시장은 각종 축제공품의 판매가 이루어졌던 담양 경제의 중심지였다. 조선 시대에는 삿갓과 참빗 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몽골에까지 팔려나갔으며,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는 장난감·의자·베개·찾잔

19) 최두석, 「담양장」, 『성에꽃』, 문학과지성사, 1990, p.17.

등이 해외로 수출되는 등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그러나 위 작품에 제시된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라는 구절처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위축을 거듭하여, 현재에는 시골 장터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²⁰⁾

최두석에게 있어서 담양 죽물시장의 현실은 세월에 밀려 쇠잔해진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진다. 이는 비단 장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머니와의 기억을 통해 환기되는 공간이다. 「누님」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여성성에 대한 지향은 그의 작품이 가진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어머니’야말로 여성성의 정점에 놓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품 경향은 고향에 있는 문화재를 다룬 「담양 읍내리 오층석탑」에도 나타나 있다.

사라진 역사의 그늘에서
어느 여인이 이 탑을 돌았을까
어떤 표정으로 경건하게
어떤 소망을 품고 간절하게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어머니들이
고개 숙인 채 탑돌이를 하였을까

탑을 돌던 어떤 사연의 여인이
탑을 떠나 어떤 길을 밟아
모태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천 년 세월의 굽이를 돌아
마침내 내 어머니의 자갈밭에 이르러
허리 굽혀 콩밭을 매고 있는가²¹⁾

20) 한국문화유산답사회 편, 앞의 책, pp.45~46.

21) 최두석, 「담양 읍내리 오층석탑」, 『꽃에게 길을 묻는다』, 문학과지성사, 2003, p.84.

3. 역사적 상흔의 회복을 갈망하는 공간

1) 방울재·장성댐

문순태는 “삶에 내재되어 있는 한(恨)의 문제를 집요하게 추구”²²⁾ 해온 작가이다. 여타의 작가들도 우리 민족이 가진 ‘한’의 문제를 다룬 경우가 없지 않으나, 문순태는 이를 통해서 한국인의 의식을 표출하고 민중적 삶의 근원을 캐며 그 문학적 재능과 깊이의 뿌리를 내리고자 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고 평가된다.²³⁾ 작가 자신도 ‘한’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천착을 거듭했다. 문순태의 석사학위논문이 「한국문학에 나타난 한의 연구」라는 제목을 가지게 된 이러한 천착의 결과이며, 창작적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작품을 통해서 한의 형성이유와 해소 양상을 검토하기도 했다.

장성댐이 건설되기 전까지 북상면에 실재했던 지역인 방울재를 주요 무대로 하는 「징소리」 연작 역시 같은 맥락에 속한다. 장성댐은 ‘영산강유역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73년 7월에 착공하여 1976년 10월에 준공되었다. 댐이 건설됨에 따라 장성은 물론이고 인근의 광주·나주·함평 일대에 관개용수 및 생활·공업용수가 공급되었고, 1977년에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수몰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적합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징소리」 연작의 주인공인 ‘허칠복’ 역시 그러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박철 사장은 사뭇 명령조로 말하고 나서 시계를 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방울재가 없어진 지가 언제라고요?”

“없어지다니?”

“풍덩 잠겨뿌렸어요. 그랑께, 이 정도 방울재 사람들이 다 큰 강아지 새끼들모냥

22) 문석우, 「고향상실에 나타난 신화성」, 『비교문학』 제30집, 한국비교문학학회, 2003, p.345.

23) 김정자, 「한’의 문제, 그 맥락의 오늘」, 『국어교육』 제57집, 1985. 참고.

뿔뿔이 흩어질 적에 저저끔 채감한 거로구만요. 저는 정채잡이었으께 징을 차지헌 거라요. 덕석기는 죽어도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고 맨 나중꺼징 남아 있었던 덕보영감이 차지허굽쇼.”

그의 말이 끝나자 옆에 서 있던 장 과장이 그의 고향 방울재가 아마도 장성댐 수몰지인 모양이라고 설명을 해 줘서야 박철 사장은 동정과 이해가 함께 얹혀 크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네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하고 물었다.

“지 자랑이라곤 농사짓는 일허고, 징치는 거입쬬. 이 두 가지는 하늘 아래서 열 손가락 안에 들겁니다요.”

그는 자신 있게 오랜만에 목을 뻗뻗하게 세우며 말했다.

“그래 이름이 뭐가?”

“허칠복입니다요.”²⁴⁾

「말하는 징소리」는 「징소리」 연작 중 일부로, 고향에서 쫓겨난 허칠복이 광주 시내 한 복판에서 징을 치는 일을 하다가 다시 쫓겨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회사 현관 벽기둥에 붙은 전자시계가 열 두 시를 가리키면”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 고향에서 가지고 나왔던 징을 친다. 위의 인용에 제시된 것처럼, 징을 치는 행위는 농사 일과 함께 그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었고, 자신의 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작가는 “머리끝에서 발부리에까지 한 줄기의 소리가 그의 땀줄을 타고 온몸에 퍼지면서, 고향을 잃은 분한 마음, 아내를 잃은 슬픔이 징소리와 함께 하늘과 땅으로 울부짖음이 되어 흩어졌



▲ 장성댐 전경. 문순태의 소설 「징소리」는 댐 건설로 고향을 잃어버린 방울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24) 문순태, 「말하는 징소리」, 『제3세대 한국문학』 제21권, 삼성출판사, 1983, pp.276~277.

다”는 진술을 통해서 이를 설명했다.

징소리는 허칠복에게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아래의 인용에 제시된 진술을 통해서 징소리를 통한 한의 해소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으로까지 승화된다.

징소리는 매일 낮 12시 반만 되면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 칠보증권 11층 옥상 한 곳에서 한 가지 울림으로 퍼졌지만 80만 시민들은 저마다 각기 여러 가지 소리로 들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고향사람들의 목소리로,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울부짖음으로, 슬픈 사람들에게는 울음 대신 환희의 소리로,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용기의 외침으로 들렸다.²⁵⁾

그러나 작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여, 작품의 의미망을 확산시켰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징소리를 싫어하게 된 장필수 과장의 이야기가 그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한’에 대한 고찰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행시킨 것이다. 이는 누군가 한을 풀기 위해 하는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말로 한에 내재된 복잡성을 이해하는 단서라고 하겠다. 그만큼 한의 문제, 그리고 산업화의 문제는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이 작품이 산업화로 인해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을 다룬 작품들 중에서도 독창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활용이야말로 연작소설의 특징을 잘 활용한 창작방법의 예라고 하겠다.²⁶⁾

“방울재가 온통 낚시터가 도아뿌렸드구만. 낚시꾼들 덕분에 여남은 집이나 되돌아와서 매운탕이랑 술을 팔데. 그러디 낚시꾼들이 우리 마을에 낚싯줄을 던지고 있

25) 위의 작품, p.293.

26) 연작소설은 “여러 편의 독립된 삽화들을 모아 더 큰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고안해 낸 소설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작은 것과 큰 것, 부분과 전체의 긴장 속에서 연작으로 확장된 소설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삶의 다양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표출”하게 된다는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된다. : 권영민, 『한국 현대문학사 1945-1990』, 민음사, 1993, pp.330~332.

는 것을 보니 헛가닥 마음이 뒤집히더구만. 그래서 냇다 냇시터에서 징을 쳐뿔렀어. 그랬느니 마을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냇시꾼들 상대로 목구멍 타작이나마 하는 거야 배가 아프냐면서 덕석물이를 해서 쫓아내드구만. 할하자면 완전히 미친놈 취급당헌 거제. 그런디 마시, 물에 잠긴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을께 헛가닥 쓸개가 뒤집히데. 물 속을 들여다 보니께 헤어진 방울재 사람들 얼굴이 죄다 보이드라니께그려.”

말을 마치고 나서 칠복은 슬픈 얼굴로 한숨을 토해 냈다.

“실은 나 말이시, 방울재로 다시 들어갈 작정이네.”

덕기는 말을 하면서 고개를 깊숙이 떨구었다.

(……)

“흠을 파먹는 한이 있어도 고향 땅에서 죽고 싶네.”²⁷⁾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징을 치는 것이 한을 해소하는 방법이고, 그 소리를 듣는 것 또한 한을 해소하는 방법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그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방울재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다. 근처까지야 찾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냇시터가 되어 버린 고향과 마주칠 수 있을 뿐이다.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고향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들의 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징소리」 연작 이외의 작품에서도 문순태는 ‘한’에 대한 고찰을 계속 전개한다. ‘한’이 우리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정서인 것처럼, 그에 대한 고찰 범위 역시 다양한 공간과 인물들을 통해



▲ 장성댐 인근에 건립된 장성호 북상면 수물문화관 기념비. 소설가 문순태의 글이 새겨져 있다.

27) 문순태, 앞의 작품, p.296.

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리산 일대를 배경으로 한 「철쭉제」와 「달궁」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징소리」 연작이 산업화로 인해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한의 이유로 제시되었다면, 이 작품들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주된 이유로 제시되었다.

4. 문화적 전통을 전승하려는 노력이 포현된 공간

지금까지 살펴본 문학공간들이 산업화와 역사적 사건에 의해 훼손된 고향의 모습을 다루었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공간들은 전통적 정서를 계승하려는 노력이 전개된 공간들이다. 이들은 앞선 문학공간들보다 문제적이지 않으나, 담양과 장흥의 문학공간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1) 월산면 도개리·소쇄원



▲ 시인 이상인의 고향인 도개리 월산 마을 전경. 시 「월산 연우씨네 매화」는 바로 이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이외의 작품들도 고향의 전통적 정서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담양의 월산면 도개리에서 나고 자란 이상인에게 있어서 고향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의 시에는 앞서 살펴본 고재종이나 최두석과 같은 대립과 쟁투가 표현되지 않는다. 그의 고향이라고 해서 현실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 이는 시인의 인식이 다른 곳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고향에 대한 이상인의 인식은 「월산 연우씨네 매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랑봉 너머 실비 오는 소리
자박자박 물구집리 논물들이
물뱀처럼 논두렁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

발등을 무릎을 허리 어깨를 책을 읽듯이 득득 굽는다.

(……)

톡톡

겨우내 참았던 웃음이

연신 터진다.

손가락 마디마다

번쩍번쩍 불이 켜진다.

월산 연우씨네

오래 묵은 과수원

잠자던 혼기(魂氣)가 깨어 일어나듯

봄이면 그렇게 환해진다.²⁸⁾

인용된 작품은 이른 봄에 매화가 개화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시인은 이러한 탄생의 순간을 “겨우내 참았던 웃음이/연신 터진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통해서 “봄이면 그렇게 환해진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매화가 꽃을 피우는 공간이 “월산 연우씨네/오래 묵은 과수원”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곳에서도 매화는 피어난다. 그러나 작품에 표현되었던 것처럼 봄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매화는 오직 고향에 있는 ‘오래 묵은 과수원’에서만 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시인은 고향이 가진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낱알의 꽃눈 속에 소채원이 들어가 앉아 있다. 한쪽으로만 몸을 굽히는 청대숲이 펼쳐져 있고 몇 마리 참새들이 춘란처럼 하늘로 뻗는다. 이따금 정적을 깨뜨리며 고목의 뿌리 깊어지는 소리, 연인끼리 또는 아이의 손을 잡은 내외가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꽃눈 속으로 걸어 나온다. 장난이 심한 다섯 살짜리가 산수유의 꽃눈 속으로 도로 들어가 간헐다. 아이를 부르는 젊은 엄마의 목소리가 남쪽으로 뻗은 가지의 맨 꼬트머리에서 마른 피부를 들치고 유두 같은 꽃봉오리로 뻗고 있을 즈음 계속을

28) 이상인, 「월산 연우씨네 매화」, 『해변 주점』, 문학과경계사, 2001, pp.24~25.

흘러와 멈칫멈칫 외나무다리를 건너던 물소리 뗏이 흘깃 치어다보다가 차츰 충일되기 시작하는 산수유의 꽃눈 속으로 빼와 살을 버리고 뛰어든다.²⁹⁾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모습은 「소쇄원의 산수유」에 잘 표현되어 있다. 위에 인용된 내용에서 자연은 소쇄원을 찾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으며, 사람들 역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움직인다. 이상인에게 있어서 고향은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적 의미로 인해서 그의 작품은 대립보다는 조화에, 쟁투보다는 화해에 기울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2) 강쟁리

김희수는 담양읍 강쟁리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는 우리 문학사에서 최초로 5월 광주민중항쟁을 그린 서사시집 『오늘은 꽃잎으로 누울지라도』를 발표하는 등 현실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강렬한 저항 정신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생경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 것은 섬세한 감성과 서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³⁰⁾ 이는 「죽세공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날선 대칼로 청죽(靑竹) 물어뜯는 앞니로
정검정검 살아가는 죽세공 마을,
부챗살 참빗살 날렵하게 깎으시는
이 땅의 보기드문 예술인들이 있지.
(.....)
지금은 없지, 아무것도 남은 건 없지.
퍼렇게 날선 대칼의 손놀림 위로
무겁던 한 세월이 비껴서 가고

29) 이상인, 「소쇄원의 산수유」, 위의 책, pp.19~20.

30) 이지엽 외, 『광주·전남 현대시문학지도』, 시와사람, 2001, p.119.

백제 어둡던 죽순의 혼을 추슬러
다만 먹기 위해 풀칠하기 위해
슬픔 하나 더 뽀개보며 물어뜯으시며
페인 되어 떠도는 아들 자랑이 한창이지
내 고향 담양땅 푸르던 땡나무 밑,
영감 할멈 청송맞게 마주 앉아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참빗을 깎지
플라스틱에 밀려서 선풍기에 쫓겨서
우리들 잃어버린 마음, 곱게 다듬으시지.
별관 건너 시원한 바람만 불러모으지.³¹⁾

인용된 부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김희수는 쇠잔해가는 고향의 쓸쓸한 풍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작품 경향이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고향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표현하면서, 이들이야말로 “우리들 잃어버린 마음”을 “곱게 다듬으시”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우리가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국효문은 「남도의 대바람소리」를 통해 담양의 전통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격양된 감정으로 일관되었으며,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보이고 있다.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푸를청청 푸르른 대바람소리
푸를청청 푸르른 솜씨에 실어
집집마다 내놓는 자랑된 담양
순한 눈빛 나누며 살아갈 고향

31) 김희수, 「죽세공 이야기」, 신경림·이시영 편, 『마침내 시인이여』, 창작과비평사, 1984.



▲ 담양의 특산물인 대숲과 죽세공품은 이 지역 출신의 작가들이 즐겨 활용했던 소재이다. 대표 작품으로는 김희수의 시 「죽세공 이야기」와 국효문의 시 「남도의 대바람소리」 등을 들 수 있다.

(……)

필봉처럼 세워온 한 자루의 붓
면앙정과 식영정 일으켜왔네
푸를청청 푸르른 영롱한 꿈을
푸를청청 푸르른 담양호 이루고
관세음 미소처럼 반겨줄 고향
목청껏 노래하는 영광된 담양³²⁾

5. 결론

지금까지 전라남도 장성과 담양의 문학공간이 가진 특징과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향으로 구분되었는데, 각 경향에 속하는 작가 및 작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중적 연대의식의 근원지가 되는 고향이었다. 이에 해당하는 공간으로는 담양 수북면 궁산리, 주평대교와 궁산리대교 사이에 흐르는 강, 담양에서 순창으로 향하는 메타세쿼이아길, 담양 대전면 행정부락, 죽물시장, 읍내리 오층석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담양 수북면 궁산리에서 태어나 자란 고재종은 민중적 관점에서 농촌의 현실 문제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를 결성할 것을 염원하는 시를 발표했다. 그는 고향을 지키면서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작품세계 역시 궁산리 일대를 무대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시에 제시된 민중은 고향을 지키는 농민들과 다르지 않고, 주평대교와 메타세쿼이아길 역시 고향의 확장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담양 대전면 행성리 행정부락 출신의 최두석 역시 현실을 비판하고 민중적 연대를 지향하는 시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그는 고재종과 달리

32) 국효문, 「남도의 대바람소리」, 『남이시여』, 현대문학, 1988, p.54.

중학교 재학시절부터 고향을 떠나 생활했고, 그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보다 폭넓은 문학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민중에 대한 인식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그의 작품 경향은 이른바 '이야기시'라고 설명되는데, 이는 다양한 계층의 인물을 시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 상흔의 회복을 갈망하는 공간으로, 이는 수몰지구인 방울재와 장성댐 인근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문순태의 소설을 통해 형상화되는데, 그의 대표작인 「징소리」 연작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산업화로 인해 훼손된 고향의 면모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철쭉제」, 「달궁」, 「말하는 돌」 등의 작품을 통해서 인근의 지리산 일대를 배경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해 형성된 갈등양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했다.

셋째, 문화적 전통을 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표현된 공간으로, 담양의 월산면 도개리와 소쇄원(瀟灑園), 그리고 강쟁리 등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개리에서 태어난 이상인은 고향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다수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쇄원의 산수유」 등이 있다. 강쟁리 출신의 김희수는 시대적 상황을 표현한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죽세공 이야기」 등의 작품을 통해서 쇠잔해가는 고향의 풍경과 그곳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또한 국효문은 「남도의 대바람소리」를 통해서 담양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표현했다.

이상과 같이 장성·담양의 문학공간은 전라남도 문학공간이 가진 특징 중에서 주요한 부분, 즉 민중적 연대를 통해서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특히 그러한 노력이 특정 계층의 일방적인 진술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원인과 양상을 제시하는 형식을 유지하였다는 사실도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앞으로 전라남도의 여타 지역에 내포된 문학공간의 특징이 밝혀질 때 보다 분명한 비교와 의미 부여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를 추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고재중, 『날랜 사랑』, 창작과비평사, 1995.
- _____, 『새벽 들』, 창작과비평사, 1989.
- _____, 『앞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 문학동네, 1997.
- 국효문, 『님이시여』, 현대문학, 1988.
- 김정자, 「'한'의 문제, 그 맥락의 오늘」, 『국어교육』 제57집, 1985.
- 김희수, 「죽세공 이야기」, 신경림·이시영 편, 『마침내 시인이여』, 창작과비평사, 1984.
- 문석우, 「고향상실에 나타난 신화성」, 『비교문학』 제30집, 한국비교문학회, 2003.
- 문순태, 「말하는 장소」, 『제3세대 한국문학』 제21권, 삼성출판사, 1983.
- 박은미, 「장르 혼합현상으로 본 이야기시 연구」, 『겨레어문학』 제32권, 겨레어문학회, 2004.
- 이상인, 『해변 주점』, 문학과경계사, 2001.
- 이지엽 외, 『광주·전남 현대시문학 지도』 1권, 시와사람, 2001.
- 최두석, 『꽃에게 길을 묻는다』, 문학과지성사, 2003.
- _____, 『대꽃』, 문학과지성사, 1984.
- _____, 『리얼리즘의 시 정신』, 실천문학사, 1992.
- _____,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문학과지성사, 1997.
- _____, 『성에꽃』, 문학과지성사, 1990.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편, 『답사여행의 길잡이 5·전남』, 돌베개, 1995.